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개발’

아웅 산 수 지 여사

서울 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 수여 기념 연설

2013년 2월 1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 앞에서 발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와 같은 명예 학위를 수여해주신 데 대해 서울 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가 이 같은 영광에 걸맞을 만큼 버마에서 교육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친구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오늘 부탁 받은 주제는 아시아에서의 개발과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방대한 주제이고, 상세히 다루려면 몇 권이나 되는 책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시아 국가로서 우리 나라가 개발과 민주주의와 관련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방향에 대해 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매우 광범위한 단어이고 주제이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자유, 정의, 그리고 안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민주주의란 자유와 안전 사이에 건설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하나를 희생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독재 정권은 안전을 강조하며 국민에게서 자유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무한정의 자유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법치에 의해 지탱되는 자유와 안전 사이의 건설한 균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늘 바래온 대로 버마는 발전할 수 있고, 발전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래 전에, 즉 1948년에 우리는 영국 식민 정부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과거 우리 자유의 투사들—즉 버마의 독립 운동가들—은 늘 국가의 운명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남들, 외세가 나라의 운명을 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가 어떤 모습을 지닐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의 운명을 정할 권리를 되찾자는 이 사명이 있었기에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즉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지 2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버마는 군부의 지배 아래에 놓이

게 됐으며, 그 시기에 우리 국민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정하는 데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우리 독립의 아버지들이 바라던 대로 우리 나라의 운명을 정할 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를 바라는 아시아의 모든 국가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들의 관습, 전통, 역사에 의해 정해집니다. 저는 오래 전에, 1988년에 버마에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버마가 사회적 가치관 때문에 민주화 달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저자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확립에 방해가 될 우리의 사회적 가치관 중 몇 가지 결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는 다른 나라들도 언급했는데, 비록 그 저자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암시했습니다만 아마도 다른 모든 나라는 버마보다 먼저 민주주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결국 맞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이제 막 그 길에 발걸음을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언제나 이야기 하지만, 버마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는 발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흠에 아직 민주주의의 씨앗을 단단히 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보다 뒤쳐진 국가의 한 가지 장점은 우리가 그들의 성공뿐 아니라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외국 여행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물질적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유럽에 갔을 때—저는 일단 며칠 동안 태국에 있다가 작년 6월에 유럽에 갔는데, 선진국으로 여행하는 것은 25여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라디오에서 경기 침체로 선진국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들었기에, 저는 그 나라들이 전에 없이 부유하며,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느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 유럽은 제가 1980년대 초에 본 유럽보다 눈에 띄게 부유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태국의 경우에도 같았지요. 한국은 제가 전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번이 저의 최초의 한국 방문입니다만, 1980년대 초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부유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이 같은 물질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나라에 대해 낙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민주적·경제적 부분에서 다른 모든 나라에 뒤쳐진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나라가, 많은 국가들이 경제 발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잃어버린 듯한 몇 가지 인류적 가치를 강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연민, 인정, 조화와 같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요새는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는 점을 압니다만, 이런 가치는 오늘날 우리의 세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세계에는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미래이며 자신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든 사람들은 곧 이 세상을 남아 있는 모든 혼란을 젊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떠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아니라 더 깊은 조화로 이끄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술적 발전은 우리 세상에서 갈등의 가능성을 조금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나갈지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 본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더 인간적인 얼굴, 더 인정 있는 얼굴, 더 책임 있는 얼굴을 한 민주주의, 우리가 물질적 발전으로 가는 길에서 남들을 앞서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을 키우도록 의도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경제 발전과 연결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거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발달, 즉 인간 본성 중에서 더 좋은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내면의 우수한 자질들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동굴 속에 살면서 서로를 방망이로 때려 죽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졌고, 더 좋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완벽한 체제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합니다만, 민주주의는 인간이 여태까지 개발할 수 있었던 체제 중에 최선의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한 최선이냐?’가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최선일까요? 저는 인간 본성 중 가장 좋은 면

들에 호소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이란 단순히 여러분 안의 가장 좋은 면들에 호소하는 것, 우리 모두 안의 가장 좋은 부분들에 호소하는 것을 뜻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과 권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버마처럼 국민들이 수 십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오로지 권리—즉 자신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얻기를 기대하는 것—의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점입니다—즉 민주주의란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수반하며, 우리가 우리의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의 민주적 책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책임이란,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단순한 정의(定義)로 보았을 때, 국민에 의한 책임 있는 통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라의 책임 있는 통치에 관여할 뿐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 자신의 개인 본성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와 균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조국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며 저는 우리의 청년들의 반응에 큰 힘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버마에서 보궐 선거 운동을 벌일 때 우리 당에 대한 가장 큰 지지층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려는 일에 기여하겠다는 그들의 열광, 열망, 그리고 헌신은 진정으로 힘을 북돋워주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를 돕는 방법을 전혀 모르지만 저희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집이 될 그런 종류의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했습니다. 집이란 우리가 안전하게 느끼고, 행복하게 느끼고, 내가 구성원이라는 점에 대해 확신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버마의 모든 민족을 위해 바라는 그런 집입니다. 우리 나라는 많은 민족으로 이뤄진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 말할 때마다 저는 우리가 많은 민족으로 이뤄진 연방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만, 우리는 아직 진정한 연방도 민주적 연방도 아닙니다.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민주적 연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우리 이웃들, 다른 아시아의 민주 국가들에게서 국가적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 국민들에게서 배우게 된 것을 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민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악전

고투를 겪은 바 있으며,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고 민주 정부를 다시 세우며 또한 경제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한국인들은 어쩌면 세상의 다른 많은 국민보다 내부 갈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열된 국민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개인적인 차원뿐 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려움과 비통함—을 수반하는지 더 잘 이해합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모든 민족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분열된 국민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족인 버마족이 가장 큰 책임을 갖는다는 점을 늘 받아들입니다. 수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힘이 많을수록 책임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우리 모두 갈망해 온 민주적 연방국가 그리고 자유 국가를 만들고자 독립의 아버지들이 행한 일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민주적 연방이 되도록 버마족은 그 어느 민족 집단보다도 더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삶이란 배워가는 과정이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점—즉 배워가는 과정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순간은 절대로 없으리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 나라가 배울 것이 많지만, 다른 나라들 역시 우리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할지 모릅니다. 최초의 군사 정권이 수립된 것은 1962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평창 스페셜올림픽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사회적·정치적 장애로 고통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년간 진행된 사회적·정치적 불구 상태는 우리가 대처하기에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서 버마에 오셔서 상황을 살펴보신다면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 년 동안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당면한 문제점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경제적 발전의 길목에서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는 가치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우리 국민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길 바라는 가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공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 가치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야 하며, 그들 자신이 이런 가치들을 보존하고 싶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저는 우리 나라를 한층 인정 있는 인간 사회로 이끌어줄 그런 종류의 민주주의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저는 종종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질은 바

로 인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비용이 전혀 안 들지만 사람들이 베푸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인정 말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정은 우리가 보답으로 무엇인가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남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우리 나라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요약해야 한다면 저는 ‘베푸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고 싶다고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 것의 기쁨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베푸는 것의 기쁨을 강조하는 그런 종류의 민주주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동경하는 그런 종류의 민주주의란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유한 국가 중 일부는 더 많은 인도주의적 가치관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기쁘게, 그리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목한 바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물질적 부(富)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즉 진정한 부란 오로지 인간 본성에 있다는 점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고 풍요로운 인간 본성을 키우지 못한다면 세계의 어떤 물질적 발전도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을 안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아주 잘 지킵니다. 저는 시간을 매우 중시하는데, 시간을 중시한다는 것은 곧 남의 시간을 중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릴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존엄한 인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제게는 아주 실용적인 정치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버마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려는 우리 나라의 목표 중 하나는 우리가 2015년의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줄 헌법 개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

[질문 1]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버마에서 온 항 두 리엔이라고 하는데, 연세 대학교에서 기독교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마의 여러 민족에 대한 계획이 어

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 정부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웅 산 수 지 여사 답변:

버마에는 단지 중앙 정부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저개발 상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민족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로 다른 민족간의 갈등은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확립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자신이 국가적 조화와 화해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모든 민족의 의무입니다. 버마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적 조화와 화해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모든 민족 또한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집단마다 남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같은 책임을 진다면 제가 보기에 우리는 더 빨리 화해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쟁지역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국민민주연맹(NLD)은 늘 모든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하는 것뿐입니다—우리는 정부도 아니고, 인도주의적 단체와 조직이 갈등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줄 위치에도 처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유하고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질문 2]

안녕하세요. 저는 꼬이 막 일 하이라고 하는데,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서울 대학교 학부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마에서 온 위렌슈리라고 합니다. 이곳 서울 대학교 농업생명과학과에서 공부 중인 학부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이, 우리처럼 해외 유학 중인 미얀마 학생들을 위한 지혜로운 생각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웅 산 수 지 여사 답변:

우선 먼저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버마의 교육을 돕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나는 문제이지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돕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성공의 근본은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하지요—돕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겠다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정말로 돕고 싶으시다면,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하신 분의 이력사항을 모르니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마의 학생들에게 늘 그래왔듯, 일단 여러분께서 단합하시라고, 사이가 틀어지거나 싸우거나 말다툼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버마 학생들은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장려하고 싶지 않는 것이니 부디 여러분 사이에서 단결과 이해를 키우는 데서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나라를 많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학교 학생인 김태호라고 하고, 제 전공은 생물학입니다. 저는 버마의 경제 개발을 위해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웅 산 수 지 여사 답변:

음, 경제를 놓고 보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청년 실업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나라를 넓은 길로 인도하려면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한 바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일자리 없이 지낸 탓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은 가장 중요한 발전입니다.

[질문 4]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휘랑 이노라고 하는데, 현재 국제대학원에서 공부 중입니다. 제 전공은 국제개발정책입니다. 박사님의 풍부한 경험에 바탕해서 내일의 장래 지도자들인 젊은 사람들에게 관용, 인내, 그리고 근면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웅 산 수 지 여사 답변:

제 생각에 우선 첫 번째로 관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또 그들과 만날 때 자주 논의한 바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기술 발달로 인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늘 자기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마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양극화를 야기합니다. 관용은 차이에 대한 수용, 그리고 단지 수용할 뿐 아니라 차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와 어떤 식으로 같은지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따라 사람들을 대해 소중히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음식이 가급적 많이 먹고 싶습니다. 햄버거에 탐닉할 이유가 없지요—그건 세상 어디서든 가능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저는 관용이 우리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인내와 근면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 아주 많이 노력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기 위해 아주 많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면과 인내는 오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 사이에는 깨달음을 빼 다른 모든 일은 ‘너무’ 많이 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너무’ 많이 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것은 너무 많이 할 수 있지요—근면, 인내, 그리고 심지어 지혜조차도 ‘너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단지 남들의 약점이랑 강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약점과 강점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깨달음이란 절대로 ‘너무’ 많이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관용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비(非)버마 학생들에게 집중해주십사 살짝 부탁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버마 학생들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버마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5]

저는 이옥연이라고 합니다. 박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뵈게 될 기회가 생겨서 기쁘고 참으로 영광입니다. 청중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서는 삶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동안 박사님을 지탱해드린 것 또는 사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저는 국제 관계 교수입니다. 술한 재능 있고 유능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 받았으며 운이 좋습니다. 그 중 과반수는 외교관, 관료, 그리고 비정부 기구(NGO) 활동가가 되기를 열망하는 여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몇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웅 산 수 지 여사 답변:

음, 우선 제가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한 번도 그것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감옥에 갇힌 제 동료들에 비하면 제 삶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계속 제가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하지만, 가택 연금은 단순히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 저는 외출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가 없었습니다만—가택 연금의 첫 6년 동안 저는 완전히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저는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이 고립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내적 자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어려움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면서 맞닥뜨려야 하는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편 국제 관계를 공부하며 활동가와 비정부 기구 일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여학생의 경우, 제 생각에는 그 분들에게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 활동가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활동가가 됨으로써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며, 비정부 기구에서 일함으로써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러면 물론 자신의 수단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수단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맞춘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목표와 수단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상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잘못된 수단을 이용하면,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목표가 왜곡됐으며 자신이 바라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가가 되고 싶거나 비정부 기구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여학생에게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시느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께서 달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그 분들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질문 6]

안녕하세요, 수 지 박사님. 서울 대학교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제통상을 공부 중인 크리스틴 정이라고 합니다. 박사님의 이력과 삶 그 자체는 많은 사람에게 살아 있는 영감의 원천인데, 박사님께도 영감의 원천 또는 롤모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웅 산 수 지 여사 답변:

음, 저에게는 영감의 원천이 몇 가지 있어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모든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난 저 사람같이 되기 싫어’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일종의 영감입니다. 또는 그저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질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지요. 하지만 공인(公人)을 염두에 두시는 거라면 저는 물론 제 아버지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국가적 지도자이시며, 저는 늘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는데—어머니는 늘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저를 가르치셨지요—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분의 정직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서의 정직함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요새는 시대에 약간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에서의 정직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이상적이며 정치적 원숙함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에 오랫동안 몸 담을수록 더더욱 정직은 진정으로 최선의 정책이라고 믿게 됩니다. 대중에 대한 정직함 말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 본성이란 게, 자신이 느끼거나 고통 받는 모든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함부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하는 말은 그것이 무엇이든 정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점이 바로 손 쉽게 약속을 하고서는 똑같이 손 쉽게 ‘미안하지만 가능하지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저에게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삶에서 그래야 했던 적이 아주 아주 적게 몇 번 있었지만, 제 삶에서 약속을 어겨야만 했던 그 몇 번의 경우, 저는 그것을 아주 어렵게 했고 그 대가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죄책감으로 고통 받았고, 제가 잘못했다는 느낌으로 고통 받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로 무엇인가 할 의도가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서의 정직함을 강하게 믿으며, 제 아버지 같은 사람들, 간디같은 사람들은 개인적·공적 정직함을 믿었던 공인이기에 존경합니다.

[질문 7]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미얀마 출신으로, 특히 카친족의 일원이며 카친주에 살았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으며, 작년에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서울 기독교대학교에서 공부 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부와 투쟁해왔고 그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버마 카친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희망과 약속의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주 절박하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비록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제 민족은 버마에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 역시 평화롭거나 평온하지 못합니다. 박사님께서 방금 언급하셨듯, 우리에게서 약속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1994년에 정부와 카친 단체 사이에 휴전 협정이 맺어졌지만, 곧 위반됐습니다. 정부가 자기 쪽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는데, 그 투쟁은 아주 폭력적이며 우리 카친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카친족 중 많은 사람은 중국 국경 지대로 도망 갔으며, 또한 이 폭력이 우리 고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교육, 경제, 사회, 정서적으로 우리 민족 모든 사람의 삶을 방해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방해 요소로 인해 정부가 1994년에 카친 단체와 맺은 휴전 협정을 어기게 됐는지, 그리고 카친족은 희망, 진정한 평화, 정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박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웅 산 수 지 여사 답변:

일단 우리는 카친족과 군사 정부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약속을 할 당시, 휴전 협정을 맺을 당시, 저는 가택연금 상태였으며 국민 민주 연맹 지도자들은 투옥된 상태였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일부가 아니었고, 협정의 일부가 아니었으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협정들이 카친독립군(KIA)이 선거 전에 무장 해제해야 한다는 버마 정부의 강력한 주장 탓에 2010년 선거 전에 허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즉, 카친독립군이 약속을 한 당사자들과 상황을 정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평화 정착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왜 관여하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평화협정의 과정은 단순히 원한다고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요청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관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평화 정착 과정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드릴 용의가 있다고 공개 서한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속하는 정당과 저는 당사자들에게서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논평을 하고 상황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는 것이 진정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일까요? 이 점은 제가 늘 생각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는 일을 비판하기란 아주 쉽

습니다. 그런데 비판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협상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늘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카친족과 정부가 우리가 평화협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뿌리 뽑힌 모든 사람에 대한 인도적 접근의 필요성인데, 왜냐하면 무장 단체들이 갈등 상황에 처할 때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은 민간인이고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에는 양쪽 편이 있게 마련이고, 대개의 경우에 갈등 당사자 쌍방 모두 무장했으며, 정말로 고통 받는 것은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 특히 여자와 아이들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카친족으로 하여금 자기 여자와 아이들을 보살피도록 촉구하며 인도주의적 단체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가급적 빨리 접근하려고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어 가능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8]

저는 우간다에서 온 고을 브랜 니지라라고 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박사님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바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박사님 자택을 예방하셨을 때, 박사님께서서는 버마 또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허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의 생각에 어느 정도까지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민주화됐다고 분류될 수 있을 만큼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는 이곳 한국에 온 지 어느 정도 됐는데, 한국은 한 민족으로 이뤄진 단일 국가이지만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는 아주 많은 부족이 있으며 이것이 민주주의 과정을 좌절시켜왔습니다. 부족주의라는 문제와 다민족 국가의 경우, 박사님께서서는 서로간의 갈등으로 민주주의로 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다민족 국가들에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요.

아웅 산 수 지 여사 답변: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질문하신 분,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학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 여행 중에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버마에서의 우리의 운동을 얼마나 많이 지지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크게 놀랐는데, 저는 아프리카와 중동 사람 사이에 우리 나라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어디를 가든, 저는 저에게 다가와 지지의 말을 건네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자들을 거듭해서 만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허상, 그리고 어느 나라가 언제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제가 생각하느냐는 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방금 하신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언제 버마가 진정 도달해야 마땅한 지점에 이르렀고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간 갈등, 그리고 각국 내의 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버마의 민주화 과정이 만족스럽게 진행됐다고 생각하겠느냐는 점에 있어서는 버마의 평범한 사람들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느끼는 시점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버마에 가서서 보통 사람들에게 2010년 이래로 삶이 달라졌느냐고 물으신다면 절대 다수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들은 희망을 갖고 살지만 자기 삶에서 진정한 변화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일단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민주화 과정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국내 분쟁, 그리고 서로 다른 부족,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민족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한 갈등이 모두 자기하고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오란 두려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게 마련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 또는 사물을 증오하는 경우, 자신에게 솔직하게 이에 대해 자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물 또는 사람을 증오한다면, 그 사물 또는 사람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할까봐,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얻을까봐, 또는 어떻게든 나에게 해를 입힐까봐 두려운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지시기 바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낯설고, 이상하고, 다르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 두려움, 그 차이, 그 이상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오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곧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단순히 위협을 느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앞서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이성한 것, 나에게 낯선 것, 나와 내 가치관과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관용, 인내, 또는 근면이 더 중요한지 이야기한 바 있는데, 저는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이야말로 나의 두려움과 증오를 없애버리는 방법이자 분열과 갈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다음에는 밖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